

전주문화재단, 신진예술가들 공연 무대 위로

기초예술의 토대 마련... 소보람·최은우·김선·조민지 총 4명 신인

(재)전주문화재단은 전주를 연고로 활동하는 신진예술가들 발굴·지원하는 '전주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전도유망한 신진예술가들이 다양한 창작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예술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

올해 신진예술가는 지난 5월에 선정된 소보람(32세, 미술·설치), 최은우(33세, 미술·디지털페인팅, 애니메이션), 김선(29세, 현대무용), 조민지(29세, 창작) 총 4명으로 이들은 10월 공연예술문화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미술가 소보람은 '눈동자 넓이의 구멍으로 볼 수 있는 것'이란 전시를 연다.

소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예술학교를 졸업(MA) 한 수재로 현재 전주에서 설치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버려지거나 방치된 장소에 산재한 고유한 흔적들을 탐색·채집하여 샘플링하고, 미니멀리즘을 반영하여 설치물을 제작하고 피팅한다. 전시는 서노송동 폐공가(완산구 불왕벌2길 5-4, 전주시 매일 폐공가)에서 오는 9일까지.

디지털페인팅과 애니메이션을 접목한 미술가 최은우는 백제예술대학교 실용미술과를 졸업하고, 계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과 졸업 한 미술가이다. 최작가는 2011년 최고의 작가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을 접하며 그녀가 느꼈을 고통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다.

작가는 작품 '고립-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시대'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점차 잃어가며 스스로 모습을 감추고 방어하려 하는 현대인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전시는 우진문화공간 전시실에서 오는 19일까지.

무용가 김선은 모든 것을 쉽게 쓰고 버리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풍자한 현대 무용 '쓰고 버리기' 공연을 기획했다. 김작가는 전북대학교 무용학과를 수석 졸업 한 재원으로 현재 CDP무용단 부대표직을 맡고 있다.

김선은 유행을 쫓아 옷가지들을 버리고,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동물을 내 버리며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쉽게 정리하는 사회문제를 몸이라는 언어와 극 형식을 빌어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오는 15일 오후 7시 우진문화공간 공연장.

젊은 국악인 조민지씨는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수석 졸업 한 재원으로 2014년 세월호사건의 애석함을 모티브



전주신진예술가 지원 사업 홍보포스터

로 한 '버려진다면' 대본을 집필했다. 조작가는 모두가 기다린 구조소식은 뒤로한 채, 책임어부에만 급급했던 당시의 현실을 회고한다. 작가는 정의와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외면해 버리기 일수인 현 사회상태를 창곡으로 풍자한다. 공연은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우진문화공간 공연장. /정혜은 기자

인디음악 축제 '뮤콘' 상암동·홍대일원서

케이팝과 인디밴드 등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2016 서울국제뮤직페어(뮤콘)'가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상암동과 홍대 일원에서 열린다.

'세계 음악시장으로 들어가는 열쇠(Key to the Global Music Gate)'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뮤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행사다.

케이팝(K-Pop)과 밴드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는 쇼케이스와 국내·외 음악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콘퍼런스, 해외 바이어와 국내 업계 관계자, 음악인들과의 사업 교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문화방송(MBC)의 디엠씨(DMC) 페스티벌과 연계해 열리는 올해 쇼케이스는 오는 7~8일 상암동과 홍대 일원에서 케이팝 중심 쇼케이스와 인디밴드 중심 쇼케이스로 나뉘어 이원적으로 운영된다.

케이팝 관련 음악인들의 무대는 문화방송 공채를 중심으로 열리며 인디밴드 중심 무대는 홍대 상암마당과 무브홀 두 곳에서 개최된다.

또 오는 6일 저녁에는 상암동 문화방송 야외무대에서 뮤콘 개막 기념 '아시아 뮤직 네트워크 빅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88서울올림픽의 주제가인 '손에손잡고(Hand in Hand)'를 작곡한 조르지오 모로더와 국내 걸그룹 씨스타의 협업무대도 펼쳐진다.

뮤콘에서는 음악산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주제로 총 20여 개의 콘퍼런스가 운영되며 조르지오 모로더와 작곡가 김형석의 기초강연도 마련된다.

넥스트의 기타리스트인 김세환은 기타 브랜드인 김슨(Gibson)과 함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타클리닉'을 제공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 음악시장인 뮤콘이 케이팝은 물론이고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우리 대중음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작가들의 문학작품 기행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브런치 선택 프로그램인 '낮달'의 새로운 버전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순회 프로그램인 '사는 일이 아득해질 때'를 진행한다.



배수아

이병률

이번 문학순회에는 문태준·박성우(우리 시대의 서정을 찾아서/10월6일), 이병률·김병용(젊은 여행이며 문학/10월13일) 심보선·진은영(아득한 시의 순간/11월16일) 배수아·백가흠(우리 소설의 풍경·11월24일) 작가가 초청됐다.

첫 강연에서는 문태준·박성우 시인이 우리 문학의 중심에 있으며 가장 강력한 서정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을 조망하며 시민들과 소통한다. 이어 '젊은 여행이며 문학'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하여 작가 이병률과 김병용이 소소한 여행기를 마련한다.

내달 강연에서는 심보선·진은영 시인이 '위와 힘의 시대'를 바라보는 현대적 시선에 관한 대담 및 낭독회를 연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문법을 구축한 소설가 배수아·백가흠이 작품 밖 소설가들의 삶과 이야기를 들려준다.

진행은 '시와 소설로 읽는 한국 현대사'의 저자 이재규 씨가 맡았다.

모든 강연은 선착순 100명 무료 초청. 유료 브런치(6000원)는 카페 상상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3)270-7834. /정혜은 기자

'신석정의 문학세계를 노래하다'

부안석정문학관·전주완산구청 '석정문화제'

'한사코 삼근 대숲으로 간다'를 주제로 한 2016석정문학제가 오는 8~9일 양일간 부안석정문학관과 전주완산구청에서 개최된다.

석정문학제는 자연과 역사를 매개로 <춧발> <슬픈목가> <빙하> <산의 서곡> 등을 빚어낸 부안 출신 신석정(1907~1974) 선생의 시 세계와 문학정신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한 문학축전이다.

문학제 첫날인 8일 오후 3시에는 '신석정문학상' 시상식이 석정문학관에서 열린다. 3회 수상자로는 허소라·김수열 시인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사)신석정기념사업회는 허소라 시집 <이 풍진 세상>, 김수열 시집 <빙>을 각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시상식에는 석정 시집 각색해 곡을 붙인 왕기석 명창의 판소리도 더해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9일 오후 2시 전주완산구청 8층에서는 석정문학제가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유안진 시인의 '나를 건너지 못하는 고독이거나 유약함이거나'를 비롯해 신석정 시인의 삼남인 신광원이 '나의 아버지 신석정', 오하근 원광대 명예교수의 '신석정 초기시의 반목가적 시어'를 주제로 문학강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한국신석정시낭송협회의 석정시극 '임께서 부르시면' 공연도 마련된다. /정혜은 기자

11월 첫째주는 '저작권 열린 주간'

11월 첫째 주가 '저작권 열린 주간'으로 지정돼 저작권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한·중·일 3국이 모여 저작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11월 첫째 주를 '2016 저작권 열린 주간(Copyright Open Week 2016)'으로 정하고 국내 저작권 법제도 대응방향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뉴시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노경식 작가 '영웅' 연극 공연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남원시에서는 남원출신 유명 극작가인 노경식 작가의 '영웅' 연극이 5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후 3시, 7시 2회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최근 일본의 만연이 되풀이 되고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과거의 '진실', 현재의 '진실', 미래의 '진실'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영웅>에는 사명대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두 큰 인물이 등장한다.

사명대사의 눈에 비친 일본인은 침략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다. 오랜 내전과 침략전쟁은 있어야 할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넘어선 공멸의 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대사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인 히데타다는 제2대 쇼군이 된 이후 일본의 해외진출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속죄의 길을 걸었다. 메이지유신으로 다시 욕망이 분출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일본은 동아시아의 문명어가 아니라 모방생이었다.

'영웅'을 통해, 아베정권은 역사 속,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추구하고자 했던 세계, 즉, 문(文)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던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공연관람을 넘어 감동과 재미, 그리고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대도시의 공연장에서 보

는듯한 무대와 출연진으로 관객들의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였다.

향후 남원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연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 춘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 <2016년 10월 6일>

<p>▶ 쥐띠 48년생: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60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투기나 투지는 금하는것이 좋겠다. 72년생: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84년생: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좋은 결실을 맺는 운.</p>	<p>▶ 소띠 49년생: 어려워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는 운이다. 73년생: 혼자서 해내야 하는 운이니 타인의 덕을 바라지 마라. 85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운이다.</p>	<p>▶ 호랑이띠 50년생: 집안에 화기가 들면서 경치가 따르는 운이다. 62년생: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74년생: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다. 86년생: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인해 해결된다.</p>	<p>▶ 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길운.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나 겸손해라 75년생: 정신적으로 놀랄 일이 생기니 매사에 주의하라. 87년생: 급하게 서두르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p>
<p>▶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가신 일들이 발생하니 참견은 금물. 76년생: 뒷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의욕이 앞서는 운이나 뒷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다.</p>	<p>▶ 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65년생: 소외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이다.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바라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라.</p>	<p>▶ 말띠 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6년생: 연장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 90년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좋은 운.</p>	<p>▶ 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 막힌다.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이나 금전운은 불리하다. 7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소화가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라.</p>
<p>▶ 원숭이띠 56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기에 좋은 운이다. 6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80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된다. 92년생: 시비가 따르는 운이나 협동을 요하는 일은 미뤄라.</p>	<p>▶ 닭띠 57년생: 모든 일은 내부에서 일어나니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69년생: 지나친 욕심을 화를 부르고 심신을 어지럽게 한다. 81년생: 사함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 93년생: 원행은 불리하니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p>	<p>▶ 개띠 46년생: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가질라. 58년생: 경거망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해서는 안된다. 70년생: 동기간과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 82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p>	<p>▶ 돼지띠 47년생: 소울했던 사람과의 관계회복에 힘쓰면 좋은 운이다. 59년생: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니 내실을 다지고 마음을 정비하라. 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 83년생: 워해있던 실태가 풀리는 운이다</p>